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의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5 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17. 사랑의 하나님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본에 맞춰 우리의 삶을 조율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복된 삶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행할 용기와 끈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기상 이변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매서운 한파로 꽁꽁 얼어붙고, 반대쪽에서는 이상 고온으로 숨을 헐떡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들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 40:1,2 인도자
 ▲ 교 독 문 37. 시편 91편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윤성종 권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315. 내 주 되신 주를 다 함께
 ▲ 성경봉독 왕하 4:11-17 I. 인도자
 II. 박영신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마중물 찬양대
 II. 주여 오소서 청파 찬양대

말씀 수념 여인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풍성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연약한 이들과 어울리며 기쁨을 나누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다함께:	아멘. 주님,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매일의 일상에 만족하고, 이웃의 필요를 살피며,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집회 / 강의 :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과감하게 세속적이기

거룩을 향한 추구는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 저세상의 천당으로 가기를 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오는 시대’의 가치를 따라 일상을 살아간다고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정 가르쳐야 할 내용은 ‘세상을 저버리고, 교회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일상의 시공간 속에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일깨우고 독려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과제가 거기에 있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엉뚱한 대립구도에 얽매어 신앙적 에너지를 소진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교회에서 ‘성속’을 매우 편의적으로 나누어서 가르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접해왔음에도 정직하게 여기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교회 일은 성스럽고, 직장 일은 속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다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와 직장에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관철하고자 노력할 때라야 가능합니다. 교회 울타리로 들어간다고 세속성이 작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직장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거룩의 요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간적 이동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방식 말고, 어떤 공간이든 견지해야 할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적 과제이겠지요. 그러므로 ‘세속 성자’는 이것을 전면적 과제로 삼아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하나의 시공간에서 뒤엉켜 펼쳐지는 삶의 현장을 살아내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에 다를아닙니다.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정성을 들여 가르침을 받고 활동에 참여했는데, 신앙생활이 성장했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단지 교회에서 쓰는 용어, 분위기, 공간, 예배의 순서,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익숙해진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그것에는 익숙해졌지만 신앙적으로는 퇴행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보다 더 실망스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블라인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고 다 거룩한 일이 아니고, 교회 밖이라고 다 속된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가리고, 그 열매만 맛보고서 판별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거룩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익숙하고 그럴 듯해 보이는 쪽을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커피나 와인의 진가가 브랜드 라벨에 있지 않고, 맛 자체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요한복음 17:18)라며 그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피와 살과 뼈로 된 몸, 즉 공간성과 한평생으로 한정된 시간성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땀 흘려 노동하며 삶을 영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정하고 떠나는 행위가 아닌, 주어진 시간성과 공간성을 최대치로 살아냄으로써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인간이 자기 생애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기대치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곧 참 인간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건이든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룩은 ‘세계 내적 경건’이지 ‘세계 이탈적 경건’은 아닙니다. 과감하게 세속적이기를 시도하십시오.

별

- 신경림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혜경 구명자 김광일 이부용 김병대 김선지 김수진b김영미 김예준 김정길
 최숙화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지현b김혜영 김홍수 전성호 남명진
 김애정 노신후 박기영 박기원 이미영 박노수 남인자 박범희 박숙미 박숙영
 박해숙 사혜리 사은기 이미경 서수진 성지현 안성호 김희숙 안홍숙 홍순구
 왕수명 유금주 이광섭 김수연 이동천 이범석 류정욱 이용석 이용현 최연실
 이우상 이계월 이응석 이은경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재우 배이화 이행진
 임주빈 최현옥 임진엽 장기환 장영숙 정두리 정성식 정재기 정재은 조경환
 조미선 조순덕 조영순 최연실 최옥진 정수현 최윤희 최은미 하상애 하현일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한완식 임정자 홍윤선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김명하 오형일 김반야 김성수 김예준 김충실 조아라 김태정 김태호 선미숙
 박재영 이현정 송동준 김진경 안민호 유선호 윤영주 이삼남 정용구 이상도
 이유일 김미희 이은자 이진영b한양미 이치림 강상연 이호준 임종수 임혜진
 전근우 지윤미 채일석 최병만 서지연 한지혜 무명3

녹색꿈헌금

권미숙 김영락 김향자 우순덕 이행진

생일감사헌금

김지현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성서학당 : 오늘 오후집회는 청파 성서학당입니다.
2. 재무교육 : 다음 주일 오후1시 세미나실에서 각 부서, 기관의 재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3. 속회 개학 : 이번 주부터 각 속회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4. 모집 : 각 부서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2부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방송실 봉사자, 홈페이지 관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혼 : 정운환 씨와 권두리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6일(토) 낮 12:10 베뉴 지웨딩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6. 신앙실천 :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용기를 내어 응답해 보십시오.

다음 주 설교 본문 전 11:1~6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흥
2부	김기석	장원호	권혁순	이범석

2월	1부 영접위원	강세기	헌금위원	이소애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송동준	강세기 정경례 이소애 김현주
	2부 헌금위원	박범희	유경순	

오늘 식당 봉사	조항미 이은자 안현숙 엄은경 강은주 김지영 신현일 박석희
다음주식당봉사	고숙이 이준림 한양미 정은선 김희숙 배기용 안성호 박재영
오늘설거지봉사	3여선교회(56-6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4여선교회(51-55세)
커피 판매 봉사	5여선교회(46-50세)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